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김 혜 연*

목 차

- I. 문제의 제기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방법
- IV. 결과 및 해석
- V. 요약 및 결론

I. 문제의 제기

가정에서는 인간의 기본욕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사회가 필요로 하는 노동력을 재생산시켜주고, 자녀양육을 통해 미래에 필요한 노동력을 세대에 걸쳐 재생산해주는 가사노동이 수행되는데(문숙재, 1990), 이는 복합적으로 가정생활을 구성한다.

원래 가정생활은 가족성원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사회에는 성인여성은 누구나 주부가 되어야 하며, 가사노동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능, 혹은 천직으로 여겨져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는 주부로 가정되어왔다.

반면 오늘날에는 산업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 가사노동을 대체할 수 있는 시장제품이 등장하였고, 주부자신의 교육수준 향상과 더불어 가치관이 변화하면서 생활의 편리를 추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더욱이 노동력에 참여하는 취업주부의 증가는 주부의 가사노동에 대한 태도 및 수행방식에 결정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되었다.

* 제주대 가정관리학과 교수

오늘날 주부들은 가사노동이 주부만의 일이라는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서 벗어나 융통적인 태도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족원의 참여와 도움을 기대하고 있는데(Wheeler & Arvey, 1981; 최외선, 1982), 가족내에서 주부의 일차적인 도움의 원천은 남편이기 쉽다. 즉 남편은 주부에게 애정과 신뢰감 등의 정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사람으로 중요하기도 하지만, 가정생활에 참여하여, 실제적으로 가사노동을 분담해주는 수단적 지지의 제공자로서의 기능(House, 1981; Williams, 1988)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현대사회에서 평등한 부부란 부부가 가사노동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으로 규정되며, 이러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주부가 경험하는 생활의 질 및 복지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지고 있다(Williams, 1988; Berkowitz & Perkins, 1984; Kimball,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8).

이와 같이 주부들은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하고 있으며,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서영숙, 조필교, 1976; 문숙재, 1980).

반면 이러한 의식과는 대조적으로 주부들 스스로가 실제로 있어서는 여성적인 노동으로 생각되는 가사노동의 분담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는 측면도 나타나고 있다(송혜림, 1988; 문숙재, 1991).

또한 남편들 역시 주부들보다는 성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갖는 경향이 있으며, 평등적인 가사노동의 분담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해도 실제 행동에 있어서는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문숙재, 1991).

따라서 서구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평등한 가사노동 분담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모델을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지만(Hiller, 1984; Coleman, 1988; Kamo, 1988),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부의 역할구조와 역할기대,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의식과 실태에 관한 소수의 연구(류시중, 1970; 김외숙, 서창원, 1986; 박인덕, 1977; 송혜림, 1988)만이 이루어진 바 있다.

더욱이 제주도의 경우 “집안일은 남성, 바깥일은 여성”이라는 육지와는 구별되는 성역할관념이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육지와와의 비교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주부의 의식과 실태 및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제주도 부부의 고유한 역할구조와 가사노동분담실태를 과

악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육지지역의 경우와 비교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평등한 부부관계를 지향할 수 있는 관련요인을 밝힘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부의 복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정내·외적 노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A.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우리 사회에는 성인여성에게 있어서 주부가 천직이며, 가사노동은 여성이 수행해야 할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기능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이 지켜지던 전통사회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받아들여지고는 있지만,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는 여전히 주부이다.

가사노동이 주로 주부에 의해 행해지고 있음은 국내외에서 행해진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관한 연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윤복자, 1975; 이정수, 1984; Sanik, 1981; Nickols & Karon, 1980).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기술혁신이 이루어지고 시간절약적 가전제품 등이 등장하면서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이 감소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는데, 자녀양육의 표준 상승 등 몇몇 작업을 위한 시간요구는 감소한 반면, 다른 작업을 위한 시간수요가 증가하였으므로 과거와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Walker, 1969).

더욱이 주부가 직장을 갖게 되더라도 주부의 일차적인 책임은 가사노동이므로 취업주부는 직장노동이외에 가사노동의 책임을 부가적으로 갖게 되므로 총노동시간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전업주부의 1일 평균 가사노동시간은 조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8시간에서 12시간 정도이다(문숙재, 정영금, 1988; 문숙재, 1990).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을 대략 9시간으로 볼 때 주부의 주당 노동시간은 $7 \times 9 = 63$ 시간으로, 이는 우리나라 남자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인 48시간(통계청, 1991)보다 15시간이나 많다.

한편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에 대한 선행연구(Wheeler & Arvey, 1981; Walker & Woods, 1976; Nye, 1976; 이정수, 1984; 이연주, 1984)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은 주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미국의 경우 한 연구에 따르면 (André,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7), 1965~1966년에 미국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당 평균 11.3시간이었던 반면, 1975~1976년의 경우에는 단지 6%, 즉 하루 6분만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1년에 행해진 조사(한국여성개발원, 1991)에서 밝혀진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38분이며, 휴일 가사노동시간은 60분이었다. 또 다른 연구결과(문숙재, 1991)에 따르면 남편의 평일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37분, 휴일의 경우 평균 98분이어서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남편의 가사노동시간은 주부가 취업할 경우 약간 증가하기도 하지만 (Scanzoni, 1980), 주부의 가사노동시간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Michel(장정순, 역, 1989)은 남성이 결혼을 함으로써 아내의 가사노동에 의해 독신으로 지낼 때보다 5년간 더 일할 수 있는 시간에 상응하는 시간을 벌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즉 기혼남성은 결혼함에 따라 가정에 대한 부양 책임은 증가하지만, 독신남성에 비해 더 적은 가사노동을 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은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시간 뿐 아니라 분담영역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실태를 잘 나타내준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신체적으로 힘들거나 그것이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할 수 있는 작업들로 인식되는 집손질, 수리, 가구옮기기 등에 집중되며, 식생활과 의생활과 관련된 여성적인 가사노동작업에 대해서는 거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이정우, 1972; 송혜림, 1988).

최근에는 핵가족이라는 가족특성과 부성애의 표현이 자유로워지면서 다른 가사노동보다는 육아와 자녀돌보기에 대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Oakley, 문숙재, 역, 1990; 문숙재, 1991).

그러나 이러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자발적이라기보다는 주부의 요구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강요적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적인 작업으로 인식되는 설거지, 요리 등의 가사노동 분담은 주부가 사정이 생겼을 때 하게 되는 특수한 활동으로 일상적인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문숙재, 1991; Coleman, 1988).

이상과 같이 주부는 가사노동의 주된 책임자이며 남편은 가사노동에 있어서 2차적이고, 보조적인 참여자로 나타나고 있다.

B. 가사노동 분담 이론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1970년대 초 Oakley의 연구(문숙재, 역, 1990)로, 그는 가정에서 남편이 가사노동을 돕는 것은 극히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기에는 계층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Oakley의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왜 적으며, 그와 관련된 요인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 노력해왔다.

Huber & Spitze(1983)는 부부의 시간유용성, 상대적 권력, 성역할태도, 가사노동에 대한 취미를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한 반면, Hiller(1984)는 성차, 사회화-이데올로기, 상대적 자원, 유용한 자원, 경제적 효율성, 제도적 독려성의 6가지 요인을 제시하였다.

Kamo(1988)는 상대적 자원, 시간유용성, 권력, 이념이었다고 말하였으며, Coleman(1988)은 주부가 갖게 되는 전체적인 경제적 권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가사노동분담에는 가사노동 작업 자체의 “깨끗함(niceness)”과 “더러움(nastness)”의 특징이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설명은 크게 4가지로 대별될 수 있다.

1. 경제적 가설

이 가설에 따르면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남편은 가정밖의 직업노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이 경제적이라는 것이다(Spitz, 1988; Becker, 1976; Hochschild, 1990).

일반적으로 남편과 주부 중 누군가가 직업노동을 해야한다고 가정할 경우 남편이 벌어들일 수 있는 소득이 주부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주부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남편이 직업노동을 하는 것이 더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주부가 수행해야 하는 가사노동의 양이 많은 것은 경제적 실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족적 전략의 하나이므로 이것은 성역할이념이나 남성들의 특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남편과 주부의 성별분업적 현상이나 그로 인한 영향보다는 결과적으로 노동의 생산성, 즉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남편과 주부가 각각 직장일과 가사노동에 투입하는 시간이 다를 수밖에 없다

는 것으로 기능론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2. 자원과 권력가설

이 가설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남편과 주부가 갖고 있는 자원과 그를 통한 권력의 행사에 의해 결정된다.

남편과 주부는 각각 소득, 직업적 지위, 교육수준, 신뢰, 애정, 성, 신체적 특성 등의 객관적, 주관적 자원을 갖고 있으며, 이는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데 있어서 협상할 수 있는 권력을 부여한다(Blood & Wolf, 1960; Spitz, 1988; Blair & Lichter, 1991).

특히 소득은 가정생활의 중요한 요소여서 부부의 소득은 가사노동의 분담에 영향을 주는 자원과 권력으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Ericksen, Yancey & Ericksen(1979)와 Bird, Bird & Scruggs(1984)는 소득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주부의 소득이 많을 수록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한다고 한 반면 Model(1981)은 주부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감소한다는 반대의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Blumstein & Schwartz(1983)는 소득과 관계없이 직업지위에 따라 가사노동의 분담형태가 결정된다고 하였다. 즉 주부의 분담요구와 남편의 욕구가 상치될 경우 권력이 작용하게 되며, 이 때 남편이 주부에 비해 강력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면 가사노동의 분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협상의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것이다(Olson & Cromwell, 1975).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자원과 권력에 의해 설명하려는 이러한 견해들은 권력이 실제적으로 행사되는 과정을 역동적으로 나타내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즉 개인이 갖고 있는 객관적 자원 그 자체가 영향을 주기보다는 그 자원을 통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과 영향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인지하는가라는 주관적 판단이 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Szinovacz, 1987).

3. 가사노동을 위한 가용시간가설

이 가설에 따르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직업노동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한 자유시간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남편이 가사노동을 분담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하는데, 남편들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싶어도 직장노동에 보내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가사노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의 직업구조는 주부의 생활시간을 가사노동을 수행하기 위한 시간으로 존재하며, 남성은 가사노동을 수행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남성 중심적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남편은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싶어도 분담이 어렵다(함인희, 1993).

이 가설은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적은 이유를 부분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지만, 주부가 취업을 하게 되어 가사노동을 위한 가용시간이 적어질 경우에도 주부가 가사노동에 책임을 지는 현상에 대해서는 설명해주지 못한다. 따라서 시간유용성을 고찰하는 것은 부부의 역할구조를 파악해주지 못한다.

4. 성역할 이데올로기 가설

이 가설에 따르면 남편과 주부 중 한 사람 또는 두 사람 모두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를 내면화하고 있을 경우 주부의 가사노동책임이 훨씬 커지게 된다. 실제로 남편은 퇴근 후 혹은 휴일과 같이 가사노동을 위한 시간이 주어진다 고 해도 가사노동을 여성만의 일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주부 역시 일반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필요로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사노동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따라서 남편뿐 아니라 주부 역시 전통적으로 남성이 담당할 수 있는 일의 영역에서 가사노동의 분담을 기대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가사노동의 분담에 있어서 성역할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많다(박인덕, 1977; 문숙재, 1980; Birk & Birk, 1979; Hood, 1983; Bird, Bird & Scruggs, 1984).

이러한 전통적인 성역할 이데올로기는 가정에서 또는 사회에서 사회화를 통해서 습득된다.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해 기본적으로 자원과 권력 가설 및 성역할 이데올로기 가설의 입장을 취하고자 한다. 이것은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가정의 일반적 상황과 주부 및 남편의 특성 뿐 아니라 주부의 심리적 변수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Ⅲ. 연구방법

A. 연구문제의 설정

본 연구는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 의식과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제주도 부부의 역할구조를 이해하고 육지의 연구결과와 비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주부의 복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1) 제주도 주부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2) 제주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어느 정도이며, 이와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3)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어느 정도이며, 이와 관련된 변수는 무엇인가?

(연구문제4)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제변수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인가?

B. 측정도구와 척도의 작성

본 연구의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 가정의 환경과 부부의 특징을 조사하기 위해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자녀수, 막내자녀의 연령, 소득, 부부의 취업, 취업에 따른 소득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었다.

한편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의식과 실태는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주부의 기대수준과 실제로 남편이 도와주는 정도에 의해 파악하였다.

이 때 가사노동은 문숙재(1988)의 분류를 근거로 하여 의생활관리 4문항, 식생활관리 4문항, 주생활관리 7문항, 가족관리 8문항과 경영 및 구매 7문항의 총 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 문항들은 예를 들어 자녀의 연령이 학령기일 때 '자녀에게 밥먹여주기'와 같이 가정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안됨'의 응답항목을 두었다.

이러한 응답항목이외에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 기대수준과 실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수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범주는 5점 likert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응답점수가 높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주부의 기대수준과 실제로

남편이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전체적으로 남편이 도와주는 정도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하는 하나의 문항으로 파악하였으며, 만족도는 0점부터 10점까지의 범위를 갖게 되는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 연구대상 및 자료의 분석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시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의 주부로 남편이나 자녀가 없는 가정은 조사에서 제외하였으며, 자녀의 연령과 주부의 취업, 소득수준을 고려하였다.

1993년 10월 3일부터 10월 20일까지 총 200명의 주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수집된 자료 중 부실기재된 것을 제외한 163부를 최종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평균, %, 빈도 등을 통해 일반적인 경향과 분포를 조사하였고, 가정상황과 부부의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의 분담의식과 실태 및 만족도는 GLM 분석과 DMR검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관련변수들의 영향력은 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통해 파악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A.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163)

변 수	집 단	빈도	%	변 수	집 단	빈도	%
주부연령	20대	26	16.0	남편연령	2, 30대	62	38.0
	30대	51	31.3		40대	49	30.1
	40대	47	28.8		50대이상	52	31.0
	50대이상	39	23.9				

변 수	집 단	빈도	%	변 수	집 단	빈도	%
주부연령	중졸이하	50	30.7	남편학력	고졸이하	79	48.5
	고졸	72	44.1		대졸이상	84	51.5
	대졸이상	41	25.2	막내연령	7세이하	57	35.0
자녀수	1명	40	24.5		8-16세	46	28.2
	2명	69	42.4		17세이상	60	36.8
	3명이상	54	33.1	주택유형	자가	114	69.9
주택유형	단독주택	95	58.3		임대	49	30.1
	집합유형	68	41.7	남편직업	단순기능직	6	3.7
주부취업	무	76	55.9		고용기능직	15	9.2
	유	60	44.1		자영업	53	32.5
	단순기능직	27	16.6		사무기술직	66	40.5
	자영업	34	20.9		전문관리직	23	14.1
	사무기술직	25	15.3		주부소득	없음	71
	전문기술직	1	0.6	50만원이하		36	22.1
가정소득	120만원이하	31	19.0	51-85만원		27	16.6
	121-150만원	60	36.8	86만원이상		29	17.8
	151-200만원	41	36.8	남편소득	80만원이하	33	20.4
	201만원이상	30	25.2		81-110만원	48	29.6
남편소득	80만원이하	33	20.4		111-150만원	45	27.8
	81-110만원	48	29.6		151만원이상	36	22.1
	111-150만원	45	27.8				
	151만원이상	36	22.1				

B. 연구문제의 분석

1. 주부의 가사노동분담 의식

제주도 주부들의 가사노동분담 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어느 정도로 기대하고 있는지를 가사노동 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주부의 가사노동분담 기대 수준

가사노동영역	주 요 항 목	평 균	표준편차
식생활관리	음식만들기, 식사시 시중, 설거지 등	1.94	0.86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주생활관리	청소, 정돈, 이부자리개기, 집손질 및 문단속 등	2.99	0.80
의생활관리	빨래, 세탁물정돈, 다림질, 옷수선 등	1.56	0.68
가족 관리	자녀돌보기, 공부봐주고 놀아주기, 어른시중들기 등	1.96	1.16
경영및구매	가계부적기, 가정계획세우기, 일반 및 특별구매, 은행, 관공서출입	2.51	0.68
전 체		2.21	0.60

3점을 기준으로 평균값을 고려해 볼 때 주부들은 가사노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며, 가장 기대하지 않는 영역은 의생활관리영역, 즉 전통적으로 여성적 작업의 특징을 갖는 가사노동이었다.

반면 가장 가사노동의 분담을 기대하는 가사노동 영역은 신체적으로 힘이 들고 남성적 노동의 특성이 강한 주생활관리였으며, 그 다음은 경영 및 구매의 영역이어서 이정우 (1972), 송혜림(1988), 문숙재(1990) 등의 국내연구결과와 일치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제주도 주부들은 육지의 주부와 마찬가지로 가사노동이란 남편의 일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신의 노동이며, 책임이라는 전제하에 남편이 가사노동을 도와주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가사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분담 의식을 갖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육지의 경우 핵가족의 가족형태와 더불어 주부의 취업이 증가하고, 남편의 부성애가 표면화되면서 주부들이 남편의 자녀돌보기 분담을 적극적으로 기대하며, 요구하고 있는 것(김미화, 1990)과는 대조적으로 제주도 주부들은 식생활관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자녀돌보기에 대한 남편들의 가사노동 분담을 기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표에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제주도 특유의 핵가족적 특성으로 인해 '어른시중들기'항목에 대해서는 '해당하지 않음'의 응답이 154명(94.5%)이나 되어 가사노동의 영역별 분담의식은 육지의 경우와 다소 차이가 있었다.

2. 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분담 의식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 의식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대상

자인 주부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분담 의식의 차이를 GLM과 DMR검증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가사노동 분담 의식

(N = 163)

가사노동		식생활	의생활	주생활	가족	경영 및	전체
변수 집단		관리	관리	관리	관리	장보기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주부연령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20대	26	2.63 A	3.15 A	1.77 A	2.77 A	2.56 AB	2.60 A
30대	51	2.01 B	3.09 A	1.61 AB	2.94 A	2.54 AB	2.44 A
40대	47	1.90 B	2.94 A	1.58 AB	1.34 B	2.65 A	2.11 B
50대이상	39	1.44 C	2.79 A	1.31 B	0.75 C	2.27 B	1.72 C
F/T값		12.18***	1.42	2.76*	92.08***	2.20	18.76***
남편연령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2. 30대	62	2.28 A	3.07 A	6.68 A	2.91 A	2.53 AB	2.50 A
40대	49	1.99 A	3.07 A	6.53 A	1.86 B	2.70 A	2.26 B
50대이상	52	1.50 B	2.80 A	5.39 B	0.84 C	2.32 B	1.76 C
F/T값		13.84***	1.97	3.72*	63.61***	4.01**	25.68***
주부학력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중졸이하	50	1.51 A	2.82 A	1.82 A	1.09 A	2.34 A	1.86 A
고졸	72	1.95 B	2.83 A	1.50 A	2.09 B	2.38 A	2.15 B
대졸이상	41	2.45 C	3.46 B	1.42 B	2.69 C	2.93 B	2.67 C
F/T값		15.97***	10.92***	4.43**	28.71***	11.96***	25.70***
남편학력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고졸이하	79	1.70 A	2.84 A	5.76 A	1.69 A	2.37 A	2.02 A
대졸이상	84	2.17 B	3.13 B	6.67 B	2.21 B	2.65 B	2.40 B
F/T값		13.77***	5.18*	4.69*	8.23**	6.78**	16.32***
자녀수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1명	40	2.42 A	3.11 A	1.74 A	2.64 A	2.63 A	2.53 A
2명	69	1.97 B	3.06 A	1.61 A	2.06 B	2.55 A	2.25 B
3명이상	54	1.55 C	2.82 A	1.35 B	1.30 C	2.38 A	1.90 C
F/T값		13.77***	1.93	4.42**	18.40***	1.72	13.68***
막내연령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7세이하	57	2.44 A	3.15 A	1.74 A	2.96 A	2.60 A	2.59 A
8-16세	46	1.84 B	3.03 AB	1.56 AB	2.04 B	2.57 A	2.22 B
17세이상	60	1.54 C	2.80 B	1.38 B	0.88 C	2.38 A	1.80 C
F/T값		20.78***	2.86	4.16**	99.13***	1.71	32.27***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가사노동 변수 집단		빈도	식생활 관 리	의생활 관 리	주생활 관 리	가 족 관 리	경영 및 장보기	전 체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주부연령	빈도							
120이하	31		2.11 A	2.91 A	1.60 A	2.18 A	2.38 A	2.27 A
121-150	60		1.85 A	2.93 A	1.61 A	2.01 A	2.35 A	2.16 A
151-200	41		2.04 A	3.19 A	1.55 A	2.02 A	2.77 B	2.34 A
021이상	31		1.81 A	2.91 A	1.44 A	1.52 A	2.63 AB	2.07 A
F/T값			1.09	1.12	0.47	1.81	3.82**	1.31
주부소득	빈도							
없음	71		1.97 A	3.06 AB	1.58 A	1.90 A	2.50 AB	2.24 A
50이하	36		1.82 A	2.72 A	1.51 A	2.12 A	2.23 B	2.10 A
51-85	27		2.00 A	2.97 AB	1.68 A	2.17 A	2.59 BC	2.28 A
86이상	29		1.95 A	3.17 B	1.47 A	1.68 A	2.85 C	2.23 A
F/T값			0.33	2.06	0.53	1.10	4.79**	0.58
남편소득	빈도							
80이하	33		1.87 A	2.88 A	1.46 A	2.11 AB	2.24 A	2.22 A
81-110	48		2.03 A	2.95 A	1.66 A	2.24 A	2.50 AB	2.36 A
111-150	45		2.08 A	3.04 A	1.58 A	1.77 AB	2.64 B	2.30 A
151이상	36		1.72 A	3.09 A	1.50 A	1.65 B	2.63 B	2.25 A
F/T값			1.42	0.50	0.69	2.37	2.49*	0.36
주부취업	빈도							
무	76		1.97	3.09	1.59	1.90	2.50	2.24
유	60		2.05	3.07	1.58	1.99	2.62	2.28
F/T값			-0.52	-0.40	-0.03	-0.45	-1.09	-0.37
남편직업	빈도							
단순고용	21		1.56 A	2.65 AB	1.38 A	1.22 A	2.10 A	1.84 A
자영업	53		1.62 A	2.63 AB	1.29 A	1.71 AB	2.16 AB	1.97 AB
사무기술	66		1.88 A	2.77 A	1.44 A	2.04 B	2.52 B	2.24 A
전문관리	23		1.50 A	2.28 B	1.26 A	1.70 AB	2.25 AB	1.88 B
F/T값			2.29	1.71	0.98	2.89**	3.41**	3.46**

* P < .05, ** P < .01, *** P < .001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 의식은 전반적으로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주부나 남편의 연령이 적을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는 남편이 가

사노동을 분담해주기를 더 기대하였다.

임정빈·김명희(1984) 역시 주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사노동의 위임의식이 높았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젊고,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일수록 현대적인 성역할태도를 보유하기 쉽기(정지영, 1990)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수행방식과 수행의 양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으며, 가사노동에 있어서 제약요인(constraint)(Hafstrom & Schram, 1983)으로 알려져 있는 자녀관련변수는 의생활관리와 경영 및 장보기의 가사노동영역을 제외한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 의식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왔다.

주부는 막내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자녀수가 적을수록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더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녀수와 막내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가사노동의 양이 유의하게 증가하므로(Walker & Woods, 1976; Gronau, 1977) 가정내에서 남편의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가정의 소득이나 남편 및 주부의 소득은 다른 가사노동영역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지만, 유일하게 경영 및 구매의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 의식과 관계가 있었다.

특히 주부는 가정의 소득보다는 자신의 소득이 많을수록, 남편의 소득이 많을수록 경영 및 장보기를 남편이 분담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서 경제적 자원으로서의 소득이 가정의 경제적 의사결정과 관계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 의식은 주부의 취업여부나 남편의 직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 의식과 달리 실제로 가정에서 제주도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가사노동영역별로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정도

가사노동영역	주요항목	평균	표준편차
식생활관리	음식만들기, 식사시 시중, 설거지 등	1.70	0.74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주생활관리	청소, 정돈, 이부자리개기, 집손질 및 문단속 등	2.64	0.89
의생활관리	빨래, 세탁물정돈, 다림질, 옷수선 등	1.36	0.57
가족 관리	자녀돌보기, 공부봐주고 놀아주기, 어른시중들기 등	1.78	1.14
경영및구매	가계부적기, 가정계획세우기, 일반 및 특별구매, 은행, 관공서출입	2.31	0.72
전 체		1.96	0.81

3점을 기준으로 평균점수를 고려해 볼 때 제주도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은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 의식과 일치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 남편이 가장 많이 분담해주고 있는 가사노동은 주생활관리였고, 그 다음은 경영 및 구매였으며, 나머지 가사노동영역에 대해서는 거의 분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육지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가정에서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주부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결과는 일반적인 제주도 부부의 성별분업에 대한 편견, 즉 '아내는 바깥일, 남편은 집안일'이라는 관념과 매우 다른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과 관련된 변수를 파악하기 위해 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의 차이를 GLM과 DMR검중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는 대체로 주생활관리영역을 제외한 모든 가사노동에서 부부의 연령이 적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하게 많아졌다.

자녀관련변수들의 경우 자녀수가 적고 막내연령이 적을수록 의생활관리영역을 제외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정수(1984), Sanik(1981)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가정소득, 주부의 소득 및 남편의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수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와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주부의 시간당 평균임금과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정도와의 관련이 있었다는 Nickols &

Metzen (1978)의 연구결과나 가정소득과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간에 부적 인 관계가 있었다는 Erickson et al. (1978)의 연구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표 5] 주부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N=163)

가사노동 변수 집단		빈도	식생활 관리	의생활 관리	주생활 관리	가족 관리	경영 및 장보기	전 체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주부연령	빈도							
20대	26	1.82 A	2.52 AB	1.47 AB	2.48 A	2.29 AB	2.11 A	
30대	51	1.88 A	2.93 A	1.51 A	2.76 A	2.44 A	2.30 A	
40대	47	1.76 A	2.55 AB	1.30 AB	1.23 B	2.40 A	1.86 B	
50대이상	39	1.31 B	2.44 B	1.18 B	0.59 C	2.03 B	1.52 C	
F/T값			5.25**	2.44	2.85*	84.25***	2.73*	15.59***
남편연령	빈도							
2, 30대	62	1.87 A	2.70 A	1.50 A	2.72 A	2.39 A	4.77 A	
40대	49	1.88 A	2.78 A	1.37 AB	1.68 B	2.48 A	2.13 B	
50대이상	52	1.33 B	2.42 A	1.18 B	0.68 C	2.04 B	1.57 C	
F/T값			10.56***	2.28	4.57**	93.68***	5.54**	27.33***
주부학력	빈도							
중졸이하	50	1.40 A	2.48 A	1.25 A	0.94 A	2.00 A	1.63 A	
고졸	72	1.65 A	2.45 A	1.30 A	1.87 B	2.24 A	1.89 B	
대졸이상	41	2.14 B	3.15 B	1.60 B	2.56 C	2.78 B	2.46 C	
F/T값			13.32***	2.53	5.17**	30.19***	15.82***	27.49***
남편학력	빈도							
고졸이하	79	1.52 A	2.48 A	1.24 A	1.45 A	2.09 A	1.82 A	
대졸이상	84	1.88 B	2.78 B	1.48 B	2.09 B	2.52 B	2.27 B	
F/T값			10.00***	4.42*	7.18**	13.19***	15.79***	21.64***
자녀수	빈도							
1명	40	1.96 A	2.69 A	1.50 A	2.53 A	2.49 A	2.25 A	
2명	69	1.70 AB	2.69 A	1.39 AB	1.86 B	2.37 AB	2.01 B	
3명이상	54	1.50 B	2.53 A	1.22 B	1.10 C	2.10 B	1.70 C	
F/T값			4.61**	0.53	3.05*	21.96***	3.67*	9.97***
막내연령	빈도							
7세이하	57	1.98 A	2.74 A	1.52 A	2.27 A	2.35 AB	2.26 A	
8-16세	46	1.76 A	2.73 A	1.38 AB	1.83 B	2.47 A	2.05 B	
17세이상	60	1.39 B	2.46 A	1.19 B	0.77 C	2.14 B	1.59 C	
F/T값			10.59***	1.74	5.03**	87.79***	2.83	21.39***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가사노동 변수 집단		식생활 관리	주생활 관리	의생활 관리	가족 관리	경영 및 장보기	전체
가정소득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120이하	31	1.67 A	2.52 A	1.48 A	1.90 A	2.09 A	1.95 A
121-150	60	1.61 A	2.55 A	1.37 A	1.88 A	2.26 AB	1.93 A
151-200	41	1.93 A	2.94 A	1.33 A	1.82 A	2.50 B	2.13 A
201이상	31	1.61 A	2.52 A	1.26 A	1.39 A	2.38 B	1.86 A
F/T값		1.74	2.10	0.80	1.38	2.04	1.27
주부소득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없음	71	1.61 A	2.56 AB	1.30 A	1.66 A	2.21 A	1.89 A
50이하	36	1.65 A	2.53 A	1.34 A	2.01 A	2.20 B	1.96 A
51-85	27	1.82 A	2.64 AB	1.55 A	1.96 A	2.39 AB	2.05 A
86이상	29	1.85 A	2.07 B	1.37 A	1.60 A	2.61 B	2.11 A
F/T값		1.06	1.70	1.26	1.16	2.52	1.00
남편소득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80이하	33	1.62 A	2.46 A	1.32 AB	1.86 AB	2.05 A	1.91 A
81-110	48	1.78 A	2.74 A	1.55 A	2.16 A	2.39 A	2.21 A
111-150	45	1.79 A	2.68 A	1.32 AB	1.55 AB	2.37 A	2.03 A
151이상	36	1.56 A	2.62 A	1.20 A	1.60 B	2.38 A	1.96 A
F/T값		0.95	0.67	0.67	3.42**	1.96	1.76
주부취업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무	76	1.62	2.60	1.32	1.71	2.23	1.91
유	60	1.90	2.83	1.48	1.84	2.42	2.11
F/T값		-1.97*	-1.41	-1.49	-0.63	-1.46	-1.76
남편직업	빈도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평균 DMR
단순고용	21	1.56 A	2.65 AB	1.38 A	1.22 A	2.10 A	1.84 A
자영업	53	1.62 A	2.63 AB	1.29 A	1.71 AB	2.16 AB	1.97 AB
사무기술	66	1.88 A	2.77 A	1.44 A	2.04 B	2.52 B	2.24 A
전문관리	23	1.50 A	2.28 B	1.26 A	1.70 AB	2.25 AB	1.88 B
F/T값		2.29	1.71	0.98	2.89**	3.41**	3.48**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남편의 직업지위 뿐 아니라 선행연구들(Walker & Woods, 1976; Nyc, 1976; Hafstrom & Schram, 1983)이 주부의 가사노동 수행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어 결과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초래하게 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주부의 취업 역시 제주도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는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5.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

남편이 가사노동을 도와주는 정도, 즉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1점에서 10점까지의 응답범주를 주어 조사한 결과 평균 5.01, 표준편차가 1.82로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주부의 일반적 특성과 가사노동 분담의식 및 남편의 실제 가사노동 분담 정도, 나아가 분담의식과 실제 분담정도간의 차이에 따라 이와 같은 주부의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GLM과 DMR검중에 의해 분석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부부의 특징 중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온 변수는 부부의 교육수준과 남편의 연령이어서, 남편의 연령이 적고, 부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졌다.

자녀의 수는 주부의 만족도와 관계가 없었으며, 막내자녀의 연령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적을수록 주부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높아졌다.

가정의 소득이나 남편소득, 또한 남편의 직업보다는 주부자신의 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라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남편의 상태보다는 주부자신의 경제적 자원 및 취업지위가 가사노동의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의식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정도 및 의식과 실태간의 차이는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변수였다.

주부가 가사노동 분담을 더 기대할수록, 실제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주부의 기대수준이 낮은데,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높다고 인식될수록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따라서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일반적으로 '기대-수행'간의 정의 관계 (positive relation)에 있는 기대불일치에 따라 만족도가 초래된다는 만족모델 (Cardozo, 1965; Andreason, 1972)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주부의 일반적 특성과 가사노동분담 및 가사노동분담 정도에 따른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

(N=163)

주부연령	빈도	평 균	DMR	남편연령	빈도	평 균	DMR
20대	26	5.04	A	2·30대	62	5.46	A
30대	51	5.34	A	40대	49	4.82	AB
40대	47	4.77	A	50대이상	52	4.65	B
50대이상	39	4.85	A				
F/T값		0.93		F/T값		3.20*	
주부학력	빈도	평 균	DMR	남편학력	빈도	평 균	DMR
중졸이하	50	4.80	A	고졸이상	79	4.62	A
고졸	72	4.76	B	대졸이상	84	5.37	B
대졸이상	41	5.68	B				
F/T값		3.93*		F/T값		7.18**	
자녀수	빈도	평 균	DMR	막내연령	빈도	평 균	DMR
1명	40	5.30	A	7세이상	57	5.48	A
2명	69	4.96	A	8세-16세	46	4.89	AB
3명이상	54	4.85	A	17세이상	60	4.65	B
F/T값		0.74		F/T값		3.23*	
가정소득	빈도	평 균	DMR	남편소득	빈도	평 균	DMR
120만원이하	31	4.77	A	80만원이상	33	4.88	A
121-150만원	60	4.83	A	81-110만원	48	5.36	A
151-200만원	41	5.29	A	111-150만원	45	4.93	A
86만원이상	30	5.19	A	151만원이상	36	4.75	A
F/T값		0.79		F/T값		0.91	
주부소득	빈도	평 균	평균 DMR	남편직업	빈도	평 균	DMR
없음	71	4.73	AB	단순고용직	21	4.57	A
50만원이하	36	4.66	A	자영업	53	4.89	A
51-85만원	27	5.56	B	사무기술직	66	5.42	A
86만원이상	29	5.59	B	전문관리직	23	4.52	A
F/T값		2.85*		F/T값		2.15	
주부취업	빈도	평균	DMR	가사노동 분담의식	빈도	평균	DMR

주부연령	빈도	평균	DMR	남편연령	빈도	평균	DMR
무	76	4.80		하	30	4.44	A
유	60	5.50		중	49	5.11	AB
				상	56	5.43	B
F/T값		-2.30*		F/T값		4.25**	
가사노동 분담정도	빈도	평균	DMR	분담의식과 분담정도간*	빈도	평균	DMR
하	39	4.39	A	하	43	5.57	A
중	49	4.47	A	중	48	4.85	B
상	60	6.02	B	상	47	4.50	B
F/T값		17.16***		F/T값		5.20**	

#분담의식과 분담정도간의 차이를 말하는데, 하집단에서 상집단으로 갈수록 음의 점수에서 양의 점수로 바뀌어진다.

* P < .05, ** P < .01, *** P < .001

6.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제변수의 상대적 영향력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주부의 일반적 특성 및 가사노동관련 변수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을 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서 회귀분석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키는 지의 여부를 살펴본 것으로, 관련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VIF를 살펴본 결과 막내 자녀연령과 주부의 연령간에 다중공선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막내자녀의 연령을 제외한 모든 설명변수를 회귀식에 포함시켰는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의 소득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그리고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의식과 실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정도간의 차이였으며, 이러한 제변수의 설명력은 39.6%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소득이 증가할수록($\beta = -.204$),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증가할수록($\beta = .424$)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졌다.

또한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의식은 높은 반면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이 실제

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그 차이가 많아질수록 ($\beta = -.292$)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회귀분석표

설 명 변 수	B	β
자녀 수	.207	.116
남편의 소득	-.004	-.204**
남편의 취업지위	.234	.125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1.113	.424***
분담의식과 분담정도간의 차이	-1.238	-.292***
상 수		2.230
R ²		.396
F		14.953

한편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남편의 실제적인 가사노동 분담 정도에 의해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다음은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 의식과 남편의 분담 정도간의 차이, 남편의 소득의 순이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는 제주도 주부에게 있어서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가정상황이나 주부자신의 특성, 취업여부보다는 남편의 실제적인 도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주도 주부는 가사노동이란 주부자신의 노동이므로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므로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을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편이 가사노동에 참여함으로써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을 때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분담 의식과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실태를 조사함으로써 제주도 부부의 고유한 역할구조를 파악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주부의 복지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요약 및 결론을 내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 주부는 가사노동이란 남편의 일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자신의

노동이라는 인식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어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을 적극적으로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전통적으로 여성고유의 영역으로 생각되는 가사노동영역이나 최근 핵가족과 취업주부가 증가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자녀돌보기 등에 대해서도 남편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적으로 제주도 남편이 가장 많이 도와주고 있는 가사노동영역 역시 주생활관리여서 남편 역시 전통적으로 남성적 작업의 특징을 갖는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이 많았다. 그 다음으로 많았던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경영 및 구매였지만, 전체적으로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은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제주도 부부의 역할구조, 즉 '주부는 바깥일, 남편은 집안일'이라는 성별분업에 대한 편견과 달리 제주도 부부는 육지의 경우와 동일한 역할구조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녀돌보기와 어른 시중들기와 같은 가족관리영역이나 경영 및 구매에 대한 주부의 분담의식과 남편의 분담 정도는 육지와는 구별되는 경향을 보였다.

둘째,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 의식과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 정도는 대체로 부부의 연령, 교육수준 및 자녀의 특성과 관련이 많았으며, 소득이나 부부의 취업특성에 따라서는 대체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특히 육지의 경우 주부의 취업이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에 차이를 가져오는 유의한 변수이기 쉬운 반면 제주도 부부의 경우에는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다면 제주도 부부의 경우 가사노동의 분담은 핵가족내에서 자녀돌보기의 일차적 보조자로 남편이 요구되므로 자녀수와 연령과 같은 가정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 이외에 부부의 연령 및 교육수준이 가사노동의 분담에 영향을 주는 자원으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두 변수가 성역할 태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성역할 이데올로기 가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만족도는 중간정도의 수준이었으며, 남편과 가정의 특성보다는 주부자신의 소득과 취업여부에 따라, 그리고 가사노동에 대한 분담의식,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정도 및 이 두 변수간의 차이와 같은 가사노동과 관련된 의식과 실태에 따라 주부의 만족도가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제주도 주부는 남편의 가사노동 분담에 대한 의식이 높지 않으나 남편의 가사노동분담이 큰 데에서 비롯되는 기대불일치에 따른 만족 모델에 부합

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기대불일치와 남편의 가사노동분담 정도가 주부의 가사노동분담에 대한 만족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변수였다.

이것은 육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부에게 있어서 남편의 실제적인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그에 따라 주부의 복지감이 좌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하겠다.

이상과 같은 결론에 덧붙여서 제언을 하자면 본 연구는 제주도 주부의 가사노동 분담을 의식과 실태를 중심으로 한 예비적 연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제주도 특유의 역할구조를 밝히기 위한 보다 많은 연구와 심층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류시중(1970), "한국도시가족의 역할-기대와 실재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논문집, 17.
- 문숙재(1980), "도시 주부의 가정관리행동에 관한 의식과 실태조사", 한국문화연구원 논총, 제37집, 351-369.
- 문숙재(1990), 가정생산, 서울:신광출판사.
- 서영숙, 조필교(1976), "가족성원간 가사노동분담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4(4).
- 송혜림(1988), "남편의 가사노동협력에 대한 주부의 기대 및 남편의 협력실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복자(1975), "가사노동 및 작업시간", 대한가정학회지, 제13권 2호, pp. 59-77.
- 이연주(1984), "주부의 취업에 따른 가족내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2(4), 131-145.
- 이정수(1984), "가족의 가사노동시간과 생활의 질 인식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2(2), 103-132.
- 최외선(1981), "부부의 역할기대에 관한 연구 I", 영남대 부설 사회과학 연구, 제1집.

- 한국여성개발원(1991), *여성의 의식과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 서울 : 한국여성개발원.
- 함인희(1993), "가족 : 변화하는 가족과 여성의 지위", *21세기와 여성*, 한국여성개발원.
- André, M. 한국여성개발원(역)(1987), *가정주부-보이지 않는 노동자들*, 한국여성개발원.
- Kimball, B. 한국여성개발원, 역, 1988, *평등한 부부*, 한국여성개발원.
- Oakley, A. 문숙재(역)(1990), *가사노동의 사회학*, 서울 : 신광출판사.
- Becker, G. (1976), *The Economic Approach to Human Behavior*,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 Berkowitz, A. D. & H. W. Perkins(1984), "Stress Among Farm Women : Work and Family as Interacting System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feb, 161-166.
- Blair, S. L. & D. T. Lichter(1991), "Measur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 of Family Issues*, Vol. 12, No. 1, pp. 91-113.
- Blood, R. O. & D. M. Wolfe(1960), *Husbands and Wives : Teh Dynamics of Married Living*, Glenco : Free Press.
- Coleman, M. T. (1988), "The Division of Household Labor", *J. of Family Issues*, Vol. 9, No. 1, pp. 132-148.
- Hiller, D. (1984), "Power Dependence and Division of Family Work", *Sex Roles*, No. 10, pp. 1003-1019.
- Hochschild, A. (1989), *The Second Shift*, NY : Viking.
- House, J. (1981), *Work Stress and Social Support*, Philippines : Addison-Wisley Publishing Company.
- Huber, J. & Spitze, G. (1983), *Sex Stratification : Children, Housework, and Jobs*, NY : Academic press.
- Kamo, Y. (1988), "Determinants of Household Division of Labor : Resources, Power, and Ideology", *J. of Family Issues*, Vol. 9, No. 2, pp. 177-201.
- Nicklos, S. Y. & Metzen, E. J. (1978), "Housework time of Husband and wif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7, No. 2, pp. 85-97.

- Sanik, M. M. (1981), "Division of Household work : A Decade Comparison 1987-1977",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10, No. 2, pp. 173-180.
- Spitz, G. (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 : A Review", *J. of Marriage and Family*, 50, pp. 595-618.
- Walker, K. E. (1969), "Homemaking still takes time", *J. of Home Economecs*, Vol. 61, No. 8, pp. 621-624.
- Walker, K. E. & M. E. Woods (1976), *Time Use :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NY :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 Wheeler, C. L. & R. D. Arvey (1981), "Division of Household Labor in the Family",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September, 10-20.

ABSTRACT

Even if the Household work is a primary role of housewife, a housewife is likely to want help and support from husband.

The purposes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vision of household work between husband and housewife and understand the role pattern of couples at home of Cheju Island.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8 housewives living in Cheju and the questionnaires were involved following contents : demographics, housewives' expectation to husbands' participation, husbands' cooperation in housework and housewives' satisfaction to that.

The degree of expectation to husband and division of husband was low, furthermore, the role pattern of couples was considered to sex-segregated.

Interestingly, The age and education level of couples was appeared to be important in explaining the division of household work.

This results suggested that resources and sex role ideology hypothesis would be applied to division of household work in Cheju.